

광주FC, 선수 이탈 막고 ‘빅클럽’ 갈 수 있을까

이정호 감독과 장기 계약 1부리그 경쟁·아챔 준비하려면 선수단 정비·강화 불가피



이정호 감독

이정호 감독을 품은 광주FC가 ‘빅클럽’이라는 최종 목표로 갈 수 있을까?
광주는 지난 13일 “이정호 감독과 2027년까지 동행한다. 구단 최장기 계약 기록이다”며 ‘깜짝 계약’ 소식을 전했다.
이정호 감독은 2021년 12월 광주의 7대 감독으로 부임한 후 사령탑 첫 시즌에 압도적인 질주로 K리그2 우승을 이뤘다. 감독 두 번째 시즌은 더 강력했다. 거침없는 공격과 총출동 수비로 K리그1 구단 최고 성적인 3위를 찍었고,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광주의 새로운 역사를 장식했다.
‘한국의 무리뉴’로 각광 받으며 입지가 달라졌고 이정호 감독 스스로 “나는 야망이 크다”고 밝혔 정도로 ‘만족’ 없는 사령탑인 만큼 그의 거취는 K리그 팬들의 관심이 쏠렸다.
광주는 몸집이 커진 이정호 감독을 품으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팀을 꾸꾸게 됐다.
발전은 만들어져야 한다. 올 시즌 광주는 끝까지 가는 까다로운 승부로 경쟁력을 보여줬다. 팬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3위’라는 목표를 이루면서 선수들의 자신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여기에 ‘이정호표’ 화끈한 축구에 관중석 분위기도 달라졌다. ‘야구 도시’ 광주에 올 시즌 뜨거운 ‘축구 바람’이 불었다.
광주 축구 새 역사의 첫 페이지는 작성됐다. ‘아시

아 무대’를 경험하게 될 내년 시즌, 광주는 이 분위기를 이어 축구 이상의 축구를 만들어야 한다.
앞서 광주는 광주시의 무관심 속 열악한 환경의 시민구단이라는 한계에 맞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
올 시즌 광주선수단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낸 만큼 이제는 시민구단 앞에 ‘열악’이라는 단어를 떼어내야 한다. 이정호 감독과의 긴 동행을 결정한 만큼 발전과 성장으로 확실히 방향성을 가져가야 한다.
문제는 역시 ‘돈’이다.
1부 리그에서 경쟁해야 하고 아챔까지 준비해야 하는 만큼 선수단 정비와 강화는 불가피하다.
아챔 참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30~40억 정도로 예상된다. 우선 리그와 아챔까지 두 리그를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선수단 보강이 필요하다. 광주는 올 시즌 33명으로 시작됐다. K리그 112개 구단의 평균 인원은 38.8명, 전북과 대전은 가장 많은 46명을 보유했다.
선수뿐만 아니라 아챔 준비를 위한 스태프 영입과 함께 대회를 치를 경비도 필요하다.
아이러니하게 선수 영입을 위해 선수 유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질적인 재정문제 탓에 광주는 유망주들과 이나 작별하곤 했다. 이적료를 통해 부족한 재원을 채우면서 다음 시즌을 만들어가는 양상이 반복됐다.

올 시즌 광주 질주를 이끌었던 엄지성·정호연 등 유스 출신의 ‘영간’ 들 역시 빅클럽에서 욕심내는 자들이다. 광주는 미래를 위해 또 미래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꾸준한 성적을 내면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안정적인 구단 운영도 필요하다.
1부리그 팀 광주지만 사무를 담당하는 프런트는 9명이 불과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19년 신생구단 창단 시 사무직 인원을 최소 2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원활한 리그 참가를 위한 최소 인원으로 20명을 설정한 셈이지만 광주 프런트 수는 턱 없이 부족하다.
리그와 아챔을 동시에 소화해야 하고, 흥행 분위기를 이어 경제 효과까지 내기 위해서는 상품 판매·마케팅도 확대해야 한다. ‘최소 인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으로 광주는 고군분투하고 있다.
결국 광주 예산과 운영의 킷을 쥐고 있는 광주시의 확실한 방향 설정과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이정호 감독이 3위 이상을 노렸던 이유 중 하나가 ACLE 무대다. 아챔 우승 상금은 무려 160억원이다. 축구로 예산을 만들겠다는 이정호 감독의 야심 찬 계획이다.
투자 없이 발전과 성장은 없다. 광주라는 텃밭에서 선수를 육성하고, 큰 무대에서 경쟁력을 키우며 예산 확보와 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다. ‘이정호 효과’를 그라운드 밖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광주 FC와 광주시의 ‘찰떡 호흡’이 필요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공격진영에서 가장 위협적인 팀은 광주FC”

K리그 패킹 지수 ‘TOP 5’ 발표 두현석·이순민·정호연 돋보여

파인얼 서드(공격진영)에서 가장 위협적인 팀, 광주FC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4일 2023시즌 K리그 마지막 패킹(패스)지수 ‘TOP 5’ 명단을 발표했다.
패킹지수는 패스를 동료에게 했을 때 그 패스로 제진 상대 선수의 수를 의미하는 ‘패스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10~12월 진행된 K리그 16경기(33~38라운드)를 대상으로 산출한 이번 데이터에서 광주는 파인얼 서드에 매서움을 보여줬다.
두현석의 존재감이 돋보였다.
왼쪽 풀백이 두현석의 원래 자리지만 최전방과 윙, 공격형 미드필더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며 ‘멀티 플레이어’의 면모를 자랑했다. 두현석은 전방위로 움직이는 활동량과 뛰어난 축구 지능을 바탕으로 파인얼 서드 패킹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두현석은 파인얼 서드 지역에서 패스 성공 83회로 160명을 제치는 효과를 봤다. 패스 하나로 평균 1.93명을 따돌렸다는 계산이다. 그는 시즌 막바지 침투와 패스로 광주 공격의 위력을 더하면서

강점을 보여줬다.
두현석에 이어 2·3위 자리도 광주의 차지였다.
K리그 시상식에서 ‘베스트 11’ 트로피를 차지한 이순민이 2위, ‘영플레이어상’ 주인공 정호연이 3위에 자리했다.
이순민은 86개의 패스로 152명(1.77)의 선수를 제쳤고, 정호연은 97차례 패스에 성공해 150명(1.55)을 따돌렸다.
이들 모두 중앙에서부터 날카로운 패스와 기동성으로 상대를 공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도전적인 축구로 K리그에서도 돌풍을 일으킨 광주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다.
두현석은 패킹 지수 전체 4위에도 이름을 올렸다.
2023시즌 가장 높은 패스 효율성을 보여준 선수는 ‘MVP’ 울산 김영권이다. 김영권은 452개의 패스에 성공해, 656명을 제치는 효과를 봤다. 평균 패킹은 1.45.
2위는 수원 FC 미드필더 이영재로 416개의 패스로 562명을 제치며, 평균 패킹 1.35를 기록했다.
3위는 서울의 오스마르(패스 369개·패킹 535·평균 1.45), 4위는 두현석(패스 388개·패킹 517·평균 1.33), 5위는 울산 이정용(패스 399·패킹 497·평균 1.25)이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파리 생제르맹(PSG) 이강인이 지난 13일(현지시간)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2023-202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조별리그 F조 6차전 최종전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선수들과 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츠르베나 즈베즈다의 황희찬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스타디온 라이코 미티치에서 열린 2023-2024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G조 6차전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오스카르 보브를 상대로 볼 경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황인범, UEFA 챔스 ‘데뷔 골-데뷔 도움’ 맹활약

즈베즈다, 맨시티에 2-3 석패 이강인의 PSG는 16강 진출

한국 축구대표팀의 ‘중원 조율사’ 황인범(즈베즈다)이 ‘강호’ 맨체스터 시티(이하 맨시티)를 상대로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데뷔 골-데뷔 도움’을 한꺼번에 따내는 맹활약을 펼쳤다.
츠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는 14일 열린 맨시티(잉글랜드)와의 2023-2024 UCL 조별리그 G조 6차전 최종전에서 2-3으로 석패했다.
이미 4차전에서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던 즈베즈다는 최종전에서 패하며 최하위(1부 5패)로 UCL 일정을 끝냈다.
반면 일찍잡지 16강을 확정했던 맨시티는 ‘6전 전승+조 1위’로 조별리그를 마무리했다.
비록 팀은 패했지만, UCL 조별리그 6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황인범은 팀이 0-2로 끌려가던 후반 31분 추격골을 넣고, 후반 추가시간 알렉산드르 카타이의 추가골을 도우면서 1골 1도움으로 ‘유종의 미’를 거뒀다.
황인범의 득점과 도움은 모두 UCL 무대에서 개인 통산 1호였다.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된 맨시티는 즈베즈다를 상대로 사실상 1.5골의 전력으로 나섰다.
‘골잡이’ 엘리팅 홀란이 발 부위 피로골절 증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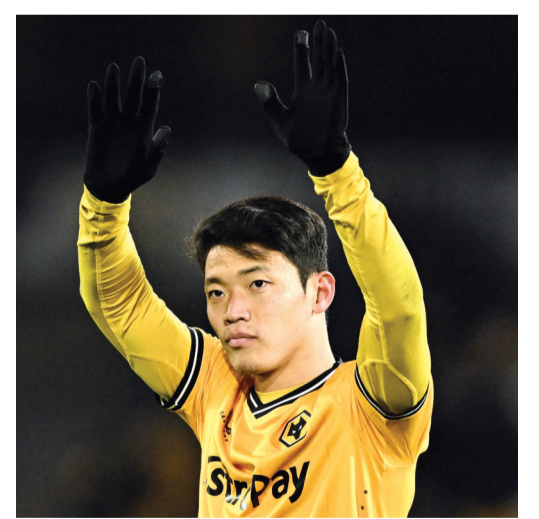
로 잠시 전열에서 빠진 상황에서 카일 워커, 로드리, 후방 디아스 등을 벤치에 남겨두고 즈베즈다를 상대했다.
핵심 자원들이 일부 빠져있던 맨시티는 전반 19분 만에 UCL 데뷔전 기회를 잡은 ‘20세 왕어’ 미카 해밀턴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전반을 1-0으로 마친 맨시티는 후반 17분 오스카르 보브의 추가 골이 터지며 2-0으로 승기를 잡았다.
즈베즈다의 반격은 황인범이 책임졌다.
황인범은 후반 31분 오스만 부카리와 패스를 주고받은 뒤 페널티지역 왼쪽에서 왼발 슈팅으로 추격 골을 터트렸다.
조별리그 6경기 만에 터진 황인범의 ‘UCL 데뷔 골’이었다.
더불어 지난 10일 세르비아 수페르리가 17라운드 홈경기에서 세르비아 무대 데뷔골을 맛보던 황인범은 공식전 2경기 연속골의 기쁨까지 맛봤다.
하지만 반격에 나선 맨시티는 후반 40분 켈빈 필립스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다시 달아났다.
즈베즈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후반 추가시간 황인범의 코너킥을 가타이가 헤더로 추격골을 터트렸다. UCL 데뷔골에 이어 첫 도움까지 작성한 황인범은 멀티 공격포인트(1골 1도움)를 기록했다.
한편, 이강인이 68분을 소화한 파리 생제르맹

(PSG·프랑스)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와 무승부를 거두면서 힘겹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에 올랐다.
PSG는 14일(한국시간) 독일 도르트문트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도르트문트와 2023-2024 UCL 조별리그 F조 6차전 최종전에서 1-1로 비겼다.
도르트문트가 3승 2무 1패(승점 11)를 기록하며 조 1위로 16강 티켓을 차지한 가운데 PSG(승점 8)는 동시간에 치러진 같은 조 경기에서 뉴캐슬(잉글랜드·승점 5)을 2-1로 꺾은 AC밀란(이탈리아·승점 8)과 승점이 같아졌다.
UCL에서는 조별리그 승점이 같으면 두 팀의 상대 전적으로 승위를 결정한다.
PSG와 AC밀란은 조별리그 상대 전적에서도 1승 1패로 같았지만, 맞대결 경기 골 득실에서 PSG가 앞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하는 기쁨을 맛봤다.
PSG는 AC밀란과 홈 경기에서 3-0으로 이긴 뒤 원정에서 1-2로 패해 골 득실에서 우위를 차지했다.
이강인은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선 킬리안 음바페의 뒤를 받쳐주는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후반 23분 마누엘 우가르테와 교체됐다.
이강인은 3차례 슈팅(유효슈팅 1개)과 4차례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공격포인트를 따내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황희찬, 울버햄프턴과 2028년까지 계약 연장

연봉은 팀 내 최고 수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울버햄프턴에서 활약하는 ‘황소’ 황희찬(27)이 팀 내 최고 연봉에 2028년 6월까지 계약을 연장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울버햄프턴이 황희찬과 새로운 계약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황희찬은 2028년 6월까지 재계약했다. 연장 옵션도 포함됐다”라며 “이번 계약으로 황희찬은 팀 내 최고 연봉 선수들과 동등한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황희찬은 2021년 8월 임대 신분으로 울버햄프턴 유니폼을 입고 EPL 무대에 데뷔, 첫 시즌 5골을 터트리는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울버햄프턴은 2022년 1월 황희찬과 임대 계약을 끝내고 2026년까지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황희찬은 이번 시즌 공식전 17경기(EPL 16경기+리그컵 1경기)에서 9골(정규리그 8골 포함)의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황희찬은 이번 시즌 울버햄프턴의 최다 득점 선수 자리를 달리고 있다. 팀 득점 2위인 마테우스 쿠냐(5골)보다 4골이나 더 넣으며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에 울버햄프턴과 황희찬이 지난날부터 재계약 협상에 나섰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황희찬

디에스레틱은 지난날 ‘구단은 황희찬의 경기력에 대한 보상으로 개선된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적시장 전문가인 로마노 기자는 황희찬이 울버햄프턴과 2028년까지 팀 내 최고 연봉으로 재계약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황희찬은 울버햄프턴에서 주급 3만 파운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팀 내 최고 주급 선수인 파블로 사라비아(9만 파운드)가 황희찬보다 3배 정도 많다. 황희찬이 팀 내 최고 연봉 선수들과 동등한 조건에 재계약한다면 사실상 3배 이상 연봉 상승의 효과를 보게 된다.
/연합뉴스